

# 14곳에 168億원

## 90億원으로 既存시설 增·改築

全 建 杓 <海運港灣廳企劃課 企劃擔當>

### ■ 漁港施設개발未洽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고 자원의 해외 의존과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경제 체제 아래에 있으므로 해운항만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항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항만시설의 확충사업과 기존시설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한계성으로 항만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만성적인 하역능력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어민생계와 직결되는 어항시설은 주요 상항의 중점개발 계획에 따라 만족할 만한 시설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항만의 관리운영체계를 잠시 살펴보면 항만법에 의해 1종 지정항만 25개에 대하여는 항만건설 및 운영을 해

운항만청이 담당하고 22개의 2종 지정항만의 건설은 해운항만청에서 운영은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해공업단지 항만수요 물동량 처리를 위해 건설되는 공업항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에서 관장하며 어항법에 의한 어항들은 수산청 및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운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입화물의 적체해소를 위한 장기항만개발방향과 지정항만중 어항관련항만의 건설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 長期港灣개발方向

89년말 현재 해운항만청 관장 지정항만의 항만시설규모는 안벽 53km, 물양장 45km, 방파제 45km 등이며 연간 1억9천만톤의 화물처리능력과 363척



의 선박동시접안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시설소요 화물량은 2억1천6백만 톤으로 시설확보율이 항만전체로는 88%이나 수출입 물동량처리 중심항만인 부산항은 58%, 인천항은 63%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컨테이너부두는 60%의 시설확보에 불과하여 화물의 적기수송에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 체선체화(滯船滯貨)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입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지난 10년간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항만에 대한 투자 부진이 오늘날의 극심한 체선체화현상을 초래하였고 이에따른 경제적 추가부담은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실정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항만의 총 해상화물량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연평균 5% 증가가 예상되어 2001년에는 5억6천2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특히 컨테이너물동량은 89년 238만개에서 연평균 8%씩 증가하여 69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계속증가하는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항만시설의 대폭적인 증설이 요구된다. 항만시설의 만성적인 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장기 항만개발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감안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타 수송부문계획과 연계하여 권역별 거점항만을 중점 개발하고 항만의 기능별 전문화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



하고 있다.

주요항만개발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4조4천9백억원을 투자하여 첫째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화 가속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컨테이너화물의 부산항 집중(95%)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산항 개발과 병행하여 광양항에 10선석(船席) 규모의 컨테이너부두 건설을 적극 추진 부산항 및 광양항을 2개 컨테이너처리 중심항만으로 개발운영하여 컨테이너화물의 유통체계를 원활히 할 계획이다.

둘째 대 중국교역 증대 등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전진기 지역활과 군장(群長)산업기지 개발 지원항만인 군장신항만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연간 2천2백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셋째로 대 북방교역에 대비한 항만으로 인천항의 선거내(船渠內) 미개발부두인 1.5.6부두를 개발하여 하역

능력 5백만톤을 제고하는 한편 동해항 2단계 개발을 추진, 연간 1천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동해항 2단계개발을 추진 연간 1천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추가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속초, 목포, 울산등 일반항시설도 계속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2001년에는 컨테이너 662만개의 처리능력을 포함한 총하역능력 4억2천만톤의 항만시설을 갖추어 체선체화현상의 완전해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指定港灣내 어항施設 投資 계획

우리나라 지정항만의 대부분은 어항으로 출발하여 항만 배후도시를 비롯한 배후권역의 산업시설의 성장에 따라 상항으로 발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이들 항만중 항만개발의 수요에 따른 화물부두 확장

이 활발히 이루어진 1종항만은 어선접안구역을 별도 설정 어민편의시설을 갖추으로써 항만 이용에 어느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2종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규모의 항만은 항만규모(시설현황 별표)가 작아 별도의 어항구역 설정 없이 어선과 화물선이 교대로 항만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어획물과 일반화물처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가 편중되고 부족되었던 결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투자를 확대해야 함은 물론 어항으로서의 기능제고를 위해 어획물양륙 어선의 안전대피 등 어민 생계와 재산 보호를 위해서 소형어선 안전정박에 필요한 항내 파랑의 최소화 및 어획물 유통 및 어구 손질등을 위한 충분한 배면부지를 조성하는 한편 어선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한 어항시설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항만확장 여지가 없는 항만에 대하여는 기존시설을 과감히 개축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해운항만청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항만개발사업중 어민 편의 제공을 위한 어항시설 확장에 91년에는 14개항만에 168억원을 투입 방파제 400m, 물양장 900m 등을 축조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시설의 증, 개축에 90억원을 투자하여 대피어선 보호를 위한 방파제보강 15개소와 노후 물양장 개축 14개소를 시행할 계획이며 주요어항시설관련 투자현황에 대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종 지정항만시설현황

'89말현재

항 별	안 벽(M)	물양장(M)	방파제(M)	하역능력 (천톤/년)
연 평 도	-	-	1,087	-
광 천	-	152	-	30
대 천	-	130	300	52
비 인	-	-	245	-
대 후 산 도	-	1,124	1,138	315
거 문 도	-	818	1,645	136
나 로 도	-	513	250	103
성 산 포	-	556	1,713	118
한 림	195	263	2,567	209
화 순	82	72	549	94
구 조 라	-	-	201	-
부 산 남	-	3,804	528	920
감 포	-	742	445	155
구 룡 포	596	598	930	596
월 포	-	20	157	4
강 구	-	902	426	180
후 포	197	886	1,137	449
죽 변	105	731	708	201
도 동	80	133	176	90
임 원	80	443	433	241
주 문 진	105	1,018	838	288
거 진	70	1,010	728	265
계	1,510	13,915	16,201	4,446

### ▶ 부산남항 건설

부산남항은 우리나라 제1의 어항으로서 성어기 최대 1천여 척이 집결하여 어획물 양륙, 보급품 공급, 원양어선의 휴식 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년 태풍래습시항내가 정온하지 못하여 구조물 및 선박의 피해가 발생되고 만성적인 체선으로 체대에 어획물을 양륙하지 못하여 어획물 선도저하 및 어가 하락 등으로 생산어민의 생계

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 수차에 걸친 개발건의 등 민원이 야기되어 87년 부산남항정비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 동 결과에 따라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선, 90년부터 93년까지 107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150m, 물양장 680m를 축조할 계획으로 있으며, 91년에는 17억원으로 돌제물양장 170m를 축조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공되는 93년말에는 어선수요 800여척 수용에 차질이 없을 것이며 연간 하역 능력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며, 이와 아울러 부족접안시설 및 어선계류수면적 확보를 위해 원양어선의 감천항 이용도 추진중에 있다.

▶ 대천항건설

대천항은 항내수면적이 협소하여 어선, 군, 관용선, 예인선, 여객선 및 기타화물선이 접안시설 부족으로 인한 혼잡접안을 함으로써 선박충돌사고의 우려를 항시 내포하고 있으며, 항내 집입도로 및 배후지가 협소하여 항만이용면에서 매우 불편하므로 대천항을 충남 중부일원의 어업중심 기지항으로 개발하여 정온수역 확보로 항만기능을 제고하고 접안시설의 용도별 기능부여로 항만시설 이용효율을 제고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와 대천항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충분한 양륙부두 및 항만관련사업 유치를 위하여 항만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89년부터 대통령공약사업으로 93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되는 본사업은 총사업비 102억원을 투자, 물양장 595m, 북방파제 600m를 축조할 계획이며, 91년에는 90년보다 대폭 증액된 22억원을 투입하여 물양장 및 방파제 축조를 계속할 계획이며, 본사업이 완공되는 95년말에는 항내정온수역이 15만㎡로 증대되고 하역능력이 연간 20만 3천톤으로 증가되어 어민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케 될 것이다.



▶ 대흑산도항 건설

대흑산도항은 성어기 최대집결어선수가 640여척에 달하는 서·남해안의 어업전진기지항으로서 본항 근해에서 조업하는 외래어선의 항천시 긴급대피항으로서의 기능도모와 여객부두, 양육부두, 기타항구 등 용도기능 부여로 항만효율을 제고하고자 80년부터 92년까지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570m, 물양장 240m를 축조할 계획으로 있으며, 91년에는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파제 상부 70m와 물양장 40m의 축조를 계속할 계획이며, 본사업이 완공되면 태풍시 서, 남해안 어장에서 대피한 어선의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 및 어민소득 증진을 도모케 될 것이다.

▶ 목포북항 개발

목포항은 호남지역 관문항으로 연안화물 수송과 도서교통 및 관광의 중심항으로서 목포

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화물처리항과 어항을 구분개발하고 있는 항만으로서 목포내항의 혼잡을 해소하고 목포항내에 산재되어 있는 어획물 위판시설, 수산물 가공공장, 제빙공장, 조선시설 등 어업관련 유통시설의 이전기반조성을 위하여 84년부터 380억원을 2001년까지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15백여척 수용규모의 어선전용부두 확보와 21만9천평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91년에는 20억원을 투자, 물양장 및 호안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계속 축조할 계획이다.

▶ 속초 청초호개발

동해 복단에 위치한 속초항 항만운영을 기존 북항은 화물선 및 여객선 겸용항만으로 이용하고 청초호는 어항 및 관광위락 기능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항기능별 분리개발을 추진중으로 총 164억원을 90년부터 93년까지 투자하여 방파제 330m, 물

양장 740m, 호안 328m를 축조하고자 하며, 91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물양장 50m 및 호안 80m를 축조계획이며, 속초항 어선물양장수요 800여척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 구룡포항 건설

구룡포항은 경북 영일군에 위치한 동해안 어업전진기로서 어선의 대형화에 따른 접안 시설 확보를 양륙, 보급, 휴게 부두 등 용도에 따라 전용부두로 구분 개발하여 성어기 550여척의 선박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황천시 선박의 안전대피를 위한 정온수역을 확보하고자 82년부터 93년까지 총사업비 107억원으로 방파제 393m, 안벽 1,226m를 축조할 계획으로 있으며, 91년에는 13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393m 완공과 안벽 30m를 축조할 계획이다.

▶ 후포항 건설

어선의 대형화추세를 감안하여 기존물양장을 개축 정비하고, 황천시 선박의 안전대피를 위하여 후포항건설에 81년부터 93년까지 215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908m, 물양장 900m 등을 축조할 계획이며, 91년에는 방파제, 물양장, 진입도로에 27억원을 투자하여 연안화물 및 집결어선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기타항만 건설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낙후된 항만시설 정비를 위하여 감포항, 강구항, 삼천포

항별 투자개발 현황

(단위 : 억원)

항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91 계획
거진항 ( '88 ~ '92)	호안 620M 돌제 445M	32	8
주문진항 ( '84 ~ '92)	방파제 150M 물양장 51M	41	4
감포항 ( '90 ~ '96)	방파제 375M 물양장 460M	37	11
강구항 ( '88 ~ '92)	방파제 200M	23	7
거문도항 ( '85 ~ '93)	방파제 1,100M 안벽 330M	144	10
삼천포구척 ( '88 ~ '95)	물양장 866M	34	6
군산내항 ( '90 ~ '95)	물양장 400M	39	6

구항, 군산내항 등의 어항시설 확충에 계속 투자할 계획이며, 동해안의 유일한 도서항만인 울릉도 도동항이 항내수면적이 협소하고 외해에 직접 노출되어 악천후시 모든 선박이 타항으로 대피하는 실정에 있어 신항만개발의 타당성 여부 및 적정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91년 시행할 계획이다.

■ 맺는 말

해운항만청에서 관장하고있는 1종 및 2종 지정항에 포함되어 있는 어항관련시설은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일반상항시설의 대규모항만 투자소요로 인하여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어선전용 물양장 및 태풍 등 악천후시 선박안전 대피시설의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

규모 항만사업의 완공에 따라 재원의 여력이 있는 현시점에서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어항시설의 확충은 방파제 높이가 낮아 태풍래습시 월파로 인하여 항내대피선박의 완전항 정온수면적 미확보와 기시설된 물양장의 대부분이 노후되어 있고 배면이 협소하여 항만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항만에 대한 기존시설의 정비보강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상적인 어항시설로서의 역할을 도모해야 하겠으며 어항시설의 장단기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 92년부터 시작되는 7차 5개년 계획에도 반영 적극적인 추진을 함으로써 어민생활 근거지 보호 및 어획물 양륙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어항이 항만 투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